

설레이는 마음

제일 큰 놀이 이번에 임관하여 입대하게 되었다. 수십만의 국군의 아버지들이 느끼는 애석하고도 허전한 감정을 처음 느끼게 된 것이다. 나라니 조국이니 하는 말에 새삼 실감있는 뜻을 느끼게 된 것이다. 엇그제까지 겨우 거름마를 하고 다니던 놀이 이제는 의젓한 장교가 된 모습을 보고 세월은 빨리 흐른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. 단란한 가정에서 이 사회의 생존경쟁 속에 한 발자국을 딛는 모든 졸업생들은 한결 같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안을 가지리라. 그야말로 생의 회오리 바람 속에 몸을 내던지는 것이다. 이것은 자라나는 인간이 어쩔수 없이 받아 들여야만 될 과정일 것이다.

닉슨이 중공을 찾아가 모·주 두 사람을 만나는 보도가 신문을 꼭 메우고 있다. 이번 방문을 갖기 전만해도 온갖 추측과 불안, 의심에 가득한 기사들을 많이 읽었다.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들을 만나면 나는 으레 한 두 마디를 질문을 하는 것이다.

닉슨이 북경까지가 한국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은 거의 목살해도 좋다고 본다. 아시아 문제의 초점인 한국 문제가 토의에 오르지 않을리가 없기 때문이다. 그러면 무슨 흥정을 할 것인가? 여기서부터 갖가지 억측이 파생된다고 본다. 그런데 이 토의에서 한국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든지 우리로서는 한 가지 분명하게, 그리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점이 있다. 그것이 어떤 형태의 조약인지, 목제라는 형태로 나올런지도 알 수 없다. 아니 알 필요도 없다. 다만 거의 확실하다는 사실은 이번 닉슨 중공 방문이야말로 우리 한국이 성장해서 대국의 무조건 비호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

간일 것이라는 사실이다. 다시 말해서 한국도 이제는 성장한 나라로서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연구하고 다루고 결정을 지어야 할 역사적인 시기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는 이 한 가지 점만은 확실하다는 말이다.

지금까지 안방에서 고이 자라던 자식이 이제는 개구장이가 득실 거리는 골목길이나 거리를 혼자서 다녀야 할 나이가 되었다. 생존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미워하던 놈하고 약수도 해야겠고, 흥정도 해야 하며 적당한 처세술도 습득해야만 할 것이다. 왜냐하면 안방에서 그리던 세계가 반드시 성장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. 다만 이러한 생존 경쟁이라는 역사 속에서 나의 생존을 말살하려고 덤벼드는 놈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줄 친구들 우방이 있어야만 한다. 이러한 친구들이나 우방이 있는 동안 우리는 마음 놓고 우리 살림을 주체적으로 꾸려 나갈 수가 있다.

안방이나 뒷 골목에서 고이 자라던 소년이 이제 큰 길가에 나가서 한 사회인으로 처세를 시작하면 무척 고독하고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. 세계 역사라는 큰 길에 나서는 성장한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다. 우리에게도 자라나는 사람이 운명적으로 겪어야 할 불안과 고독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.

그러나 성인 한국이 세계사 속에서 으젓하게 살아나가는데 이쯤 불안 고독을 못이겨내서야 될 것인가? 너스네 행차가 무엇을 가져온 것인가에 대해서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. 그러나 우리 자신이 자신의 발로 걸어다녀야 할 역사적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불안은 자랑스런 불안이 아닐까?